
저자 (Authors)	이국종
출처 (Source)	항공우주의학 학술대회 , 2015.5, 19-20(2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The Korean journal of aerospace and environmental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82185
APA Style	이국종 (2015). 항공의무이송. 항공우주의학 학술대회, 19-20
이용정보 (Accessed)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10.93.48.*** 2020/11/01 18:3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항공의무이송

이 국 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하는 것은 병원 전 단계를 포함한 중증외상 환자 치료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 산과적 질환 등의 응급 질환 뿐 아니라 특히 중증외상 환자들의 이송에 있어서 헬리콥터 등을 이용한 항공 이송은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바로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하급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상급응급의료기관까지의 전원 이송 시간을 단축하고 의료진을 빨리 접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예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헬리콥터를 이용한 환자 이송은 군 의료와 연관이 깊은데 한국 전쟁부터 부상병을 이송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베트남 전쟁 때부터 활성화 되어 현재 응급의료전달체계가 발달한 미국 및 영국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지난 50여년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헬리콥터에 의료진이 탑승하여 진료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과의 접촉하는 시간이 빨라지고 헬리콥터에서 간단한 수술적 처치를 포함한 혈액학적 감시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헬리콥터 운영에 소요되는 고비용 및 항공 이송 자체의 위험성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며 실제로 이송 실적도 매우 미미하였다. 이에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정부주도하에 닥터헬기사업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 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헬리콥터 이송 이외에도 고정익을 이용한 항공이송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헬리콥터와는 달리 공항이 필요하고 지상이동을 겸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으나 장거리 이송에 효과적이다.

항공의무이송에는 의료진이 함께 탑승하여 이송에 참여하며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기관내 삽관 등의 고도의 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훈련 받은 간호사나 또는 응급구조사들만이 탑승하고 있으며 영국, 일본 등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 임상과 의사들이 직접 탑승하여 이송도중 필요한 술기와 처치 및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항공의무이송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도로를 이용한 앰블런스 이송과 달리 항공기 안에서의 정확한 처치와 진료를 위해 지속적인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장거리 비행시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의료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수련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항공의무 이송에는 의료장비 및 통신 장비 등을 포함한 기술적 지원과 함께 환자가 발생 현장이나 병원에서 환자 및 의료진과 주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 및 안전 지침 등이

논의되어야 하며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언제든지 헬리콥터가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는 시공간적인 협조와 함께 제도적인 제약으로 항공이송이 늦추어지거나 결렬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협조 및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중증외상환자를 현장에서부터 최대한 빨리 처치하면서 이송 중 적절한 초기 치료를 제공하고 최단 시간 내 중증외상센터로 이송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증외상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증외상환자들의 생존률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인 것이다.